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필식



카르페 디엠(Carpe Diem·현재를 즐겨라)을 맨 처음 외쳤던 이는 옛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였다.

늘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라 "가슴에 큰 꿈을 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꿈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해졌다.

대학생들이여, 카르페 디엠을!

하먼 철없는 낭만주의자처럼 여겨지지 않게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취업난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이 대학생들의 지상과제가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이다.

말할 수 없는 시대다. 88만원 세대, 졸업을 미루고 취업준비를 하는 모라토리엄족, 취직을 못 해 졸업 후에도 부모에게 지해 사는 캥거루족 등 서글픈 용어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꿈이 있기에 아름다운 꿈은 시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은 안다.

원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S세대라 부른다는데, 그 수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같은 상황이다.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크게 줄었고 그나마 정규직보다는 인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턴제나 아르바이트를 늘려 일시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정책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꿈이 있기에 아름다운 꿈은 시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은 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과 모험을 해보게 하는 일,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는 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 그것은 사실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다.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되어, 우리 젊은 이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취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北 로켓발사 대응 냉철함 잃지 말아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자제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며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고 일본이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판단·대응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

영 대응으로 한반도 안정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는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북한의 술수에 잘려드는 일이다.

더 이상 '핵·미사일 장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북한의 위협에 맞설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한·미 간 군사공조 강화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독자적 장기 미사일 개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보다 힘의 우위, 최소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할 때 남북 대화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U대회 실사 '준비된 도시' 면모 보여주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광주유치를 향한 본격 레이스가 개막했다. U대회 유치의 핵심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FISU)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주시는 이번 실사에서 무엇보다 '준비된 U대회 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사를 받는 만큼 스포츠 도시로서의 광주의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단 숙박시설과 입국절차 등 교통편의에 대한 보완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위해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29조 원 추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당했다.

이와 함께 U대회 유치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민들의 열거다. 대회를 치러내는 실질적인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정경진



어릴 적 거짓말로 인해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일주일 후에 소풍이래요. 사이다도 꼭 사 놓으셔야 돼요"라고 부탁드렸다.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소풍 전날 들뜬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준비해 놓으셨지요?"라고 여쭙보자 어머니께서는 "뭘?"이라고 답하셨다.

삼인 성호(三人成虎)

었다. "엄마 왜 그랬어? 엉엉엉" 쏟아지는 기쁨의 눈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깨끗한 거짓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소연하더라도 증인들이 연이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된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위증(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을 말하는 것) 건수는 82건으로, 2007년(49건), 2006년(36건) 등에 비해 크게 늘었다.

거짓말은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흉기가 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한다.

길거리서 당한 휴대폰 성희롱, 엽기적 세대 '쓰쓸'

며칠 전 길을 걸어가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서는 자기 휴대폰에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자기는 눈이 나빠서 잘 볼 수 없으니 읽어달라며 내게 주었다.

위를 둘러보니 주변에 사람들도 없었고 약간 어둡아득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해본들 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였다.

전철이든 버스든, 혹은 길거리에서든 간에 이런 변태적 남성들이 종종 있다. 소위 바리맨처럼 자기 성기를 보이는 행위도 당연히 나쁘지만 이제는 휴대폰에 그런 음란 사진을 받아서 들고다니며 바리맨처럼 행동하더니 우리 사회가 너무 엽기적인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재동

기고

전갑길



경기침체 악화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실직은 '가정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일자리'가 희망이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중 80%가 대졸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난 가중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성장기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식당, 마용실, 세탁소, 구멍가게까지 속속 문을 닫으면서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 조정이 위기 타개의 능사가 아닐 뿐더러 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 육성과 핵심 경쟁력 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 유지에, 대기업은 현재의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만이 주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불황에 느는 귀농... 정보 공유·실속 있는 교육 필요

요즘 국내외 불황과 팍팍한 도시생활에 지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칫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부르게 떠났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농 사례를 토대로 귀농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좀 전하고 싶다.

귀농이 현실도피의 수단이 돼선 안 되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농촌과 자연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하지 말고 1~2년 살아 보고 신중히 매입하는 게 좋다. 즉 답답 산 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땅의 위치와 성질, 재배에 적당한 농작물 등을 살펴봐야 한다.

▲김삼욱·전남 목포시 대방동

無等鼓

지리산 발달가슴곰 NF-10(송원일)이 최근 동면하던 굴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등산에는 페사한 곰이 동면 굴에 몰이 고이자 바깥의 낙엽을 계속 긁어모으고 새끼 곰을 데리고 나와 몸을 핏는가 하면 다른 동면 장소를 찾아 150m가량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반달곰의 비극

까지 숨진 채 발견된다면 아쉬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방사원 반달곰이 출산에 성공한 것은 복원사업 개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풀었다. 이 가운데 12마리는 죽음에 실패해 돌아오거나 폐사했고, 남은 15마리 가운데 2마리가 새끼곰을 낳아 17마리로 늘었지만 이번 송원일 모자의 비극으로 다시 15마리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실종된 새끼 곰을 찾기 위해 숲의 진정한 가치를 찾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度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